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장으로 이강숙(67)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추대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를 거쳐 KBS 교향악단 총감독, 88올림픽 개·폐회식 상임위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대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행정능력과 문화를 조화시킨 예술인으로 평가된다. 출판계에서는 2005년 주빈국 행사가 한국출판문화의 소개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을 유럽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문화예술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위원장의 추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11월 20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폴커 노이만 조직위원장과 홀거 에링 부위원장이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강숙 위원장을 만나 2005년 주빈국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았다.

“서양이 우월하다는 사고

180도 바꾸는 주빈국관 운영하겠다”

>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는데, 처음에는 위원장직을 고사했다고 들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그만두고 소설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가끔 강의만 나갈 뿐 서초동에 있는 예술종합학교 연구실에서 외부와의 연락을 거의 끊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5년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창동 장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수락하게 됐다. 또 이번 일이 소설의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웃음)

> 다른 문화계 인사와의 교류가 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 출판계와의 관계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전 회장 나춘호 사장을 비롯해 열화당의 이기웅 사장, 한국프뢰벨 정인철 회장, 현대문학 양숙진 주간 등 몇몇 출판계 인사들과 교류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문화계 인사에 비해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앞으로 그 누구보다 출판계 인사를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다만 책에 대한 중요성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인식하고 있다. 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음악 역시 단지 악기나 성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악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을 보다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심리학은 물론 통계학과 관련된 책도 봐야 한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 아닌가. 책은 책이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것이기도 하다.

>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직은 충분히 우리 출판계의 과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 다만 주빈국 참가에 앞서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번역이다. 우리나라는 5,000년에 걸쳐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쌓아 왔다. 이러한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 언어와 문자 때문이기도 하다.

> 나름대로 주빈국으로서의 문화 콘텐츠는 어떤 것인지 밝힌다면. 아직은 막연하고 이상적이지만... 자동차 세차장이 있다. 들어갔다 나오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자동세차장 말이다. 도서전 주빈국관을 그런 세차장 같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갔다 나오면 저절로 한국문화에 빠지게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나라' 한국을 소개해 서양이 우월하다는 그들의 사고를 180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주빈국관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서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어떤 방식으로 조직위를 운영할 예정인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게 상식이다. 그래서 내가 조직을 운영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직원들은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도 쉽게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직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게 판단되면 밖으로 드러내게 하고 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운영방식이다. 또 주변 사람들은 나를 두고 노심초사형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고민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힘으로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이끌어 일을 성사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곧 감동시키는 기술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그 능력의 기본은 소탈함과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강숙**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